

거대 제약회사에 대한 일반의약품회사의 치열한 경쟁

건 강보험 가입자들의 저렴한 가격의 처방전 약품요구와 최고판매고의 브랜드 의약품의 특허만료 도래에 의해서 일반의약품(generic drugs) 제조업자들은 거대 제약회사와의 전면전에 나서고 있다. 일반의약품은 약국에서 조제되는 모든 처방전 약품 중 약 42%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수치는 계속 조금씩 올라갈 것이다.

하지만, 일반의약품 제약회사의 과학자들이 연구실에서 아무리 좋은 일반의약품을 만들어낸다 하더라도, 동 산업에 대한 실질적인 도전은 법원에서 이루어지며, 바로 여기서 일반의약품이 시장에 나올 수 있는가 없는가가 결정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미국 일반의약품 제조회사 중 11위를 차지하고 있는 URL Mutual사는 1천만불의 연구개발비의 약 50%를 차지하는 약 5백만불 자사 제품을 빨리 시장에 내놓기 위한 특허약품 제조업자에 대한 법적 비용으로 쓰고 있다.

일반의약품 제조업자들은 특허권이 만료되는 유명약품(brand-name drugs)과 화학적으로 동등한 약품을 개발할 뿐만 아니라 현존하는 특허를 가진 약품에 대한 개발도 하고 있다. 아직 특허권이 있는 약품에 대해서는 동 특허가 무효하며, 자사의 저렴한 약품이 동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일반의약품 제조업자들은 지난 10년동안 유명

의약품 제조회사들에 대항하는 새로운 법률 전략을 짜내고 있다.

1990년대 후반, 큰 규모의 일반의약품 제조업자들은 작은 규모의 경쟁사들을 매입하였다. 따라서 좀 더 집중적이고 재정적으로 강력한 일반의약품 분야는 완전 무장한 거대 제약회사들에 대해서 비용이 많이 드는 법적 투쟁을 기꺼이 전개하게 된 것이다.

유명약품 제약회사들은 1984년 미 의회가 현대의 일반의약품 산업을 탄생 시킨 Hatch-Waxman 법을 통과시킨 이래로 일반의약품에 대한 압력을 받아왔다. 동 법률은 일반의약품 제조업자들이 제품을 시장에 내놓기 위한 실험의 양을 줄여주었

일반의약품, 약국에서 조제되는 처방전 약품 중 약 42% 차지, 이러한 수치는 계속 오를 전망

는데, 이러한 관행은 이전에 일반의약품에 있어서는 거의 극복할 수 없는 장애였다. 일반의약품으로 조제된 처방전은 1984년에 단지 19%였다. 하지만, 오늘날 이 수치는 52%로 늘어났다.

“정치적 그리고 경제적 변화의 바람은 일반의약품 산업의 판매에서 큰 변화를 가져왔다. 국가적으로 관리되는 보건의료와 자사 직원들 혹은 고객들에게 처방전을 제공해 주고 있는 거대한 기업의 출현으로, 일반의약품에 대해서 유리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고 URL Mutual 보고서는 지적하고 있다.

출처 Knight Ridder/Tribune Business News

미국 FTC, 경쟁과 특허정책에 관한 보고서 발표

미 연방무역위원회(FTC : Federal Trade Commission)는 10월 28일 경쟁과 특허법 및 정책의 적절한 균형점을 찾음으로써 혁신을 증진시키는 방법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시장에서의 경쟁과 발명가를 위한 특허 모두가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서 함께 작용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번 보고서에는 그러한 작용을 위해서는 각 정기간에 적절한 균형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특허와 경쟁정책이 적절한 균형을 이루게 될 때 소비자와 혁신가들은 모두 승리하게 된다. 비록 의문시되는 특허가 경쟁과 혁신에 해를 끼칠 수 있기는 하지만, 유효한 특허가 혁신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경쟁과 조화를 잘 이루어야 한다.

이번 FTC 보고서는 경쟁과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특허제도의 분석과 권고안을 내놓았다.”라고 FTC의 Timothy J. Muris 위원장은 말하였다.

특허제도에 대한 권고안을 내놓은 이번 보고서는 경쟁과 특허정책간의 균형을 유지하는 방법에 대한 2개의 보고서 중 첫 번째이다. 이에 대한 두 번째 보고서는 FTC와 법무부의 독점규제과(Antitrust Division)가 공동으로 독점규제법에 대한 유사한 권고안을 가지고 제출될 것이다.

이번 보고서에서 내놓은 특허제도에 대한 10가지 권고안은 다음과 같다.

1. USPTO에 등록후 이의신청 절차를 마련할 것
2. 우월적 증거(preponderance of the evidence, 혹은 증거의 우위) 기준을 근거로 특허에 대한 소송을 결정할 것
3. 진보성에 관한 특정 법적 기준을 강화할 것
4. USPTO에 적절한 예산을 제공할 것

5. 선행기술 인용과 심사절차에 관한 규칙을 수정할 것
6. 특허대상물의 확대 이전 경쟁에 있어서의 해악을 고려할 것
7. 출원 후 18개월 동안

- 모든 특허출원을 공개할 것
8. 계속출원에 대한 보호를 위하여 개입권(intervening right - 재발행 특허에 의해 원특허보다 권리범위가 더 넓어지는 경우, 제3자가 원특허에는 속하지 않으나 재발행 특허에는 속하는 범위의 실시행위를 하고 있을 때 우리법의 법정 실시권과 유사한 권리(intervening right)가 발생함으로써 선의의 제3자가 보호된다.) 혹은 선사용권(prior use right)을 설정할 것
9. 고의적 침해의 책임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통지(actual notice)와 의도적 복제 요건을 마련할 것
10. 특허법 개정시 경제학과 경쟁 관련 사항을 고려할 것

소비자와 혁신가들의 승리를 위한 특허와 경쟁정책간의 적절한 균형이 필요

출처 FTC press release

USPTO, 특허청 심사적체의 문제가 기술혁신 및 경제의 발목을 잡다

기술혁신은 경제의 핏줄이며 일상생활에서 삶을 개선시키는 원동력이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것들이, 현재 USPTO가 안고 있고 의회가 법률안(H.R.1561)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더욱 악화될 문제 때문에 위협을 받고 있다.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저작권산업은 2001년 미국경제에 7,910억 달러가치의 기여를 했으며, 한편 이 분야는 다른 산업분야보다 매우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KPMG에 따르면 미국 특허들의 기술이전계약은 미국경제에 추가적으로 1,500억 달러가치의 기여를 했다. 지적권 보호는 IT산업에서 기술혁신 및 투자에 특히 중요하다.

USPTO에는 45,000건 이상의 특허출원이 계류 중에 있으며 특허출원에서 등록까지 약 27개월 정도 걸린다. 그러나 이러한 수치는 추가적인 재원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2008년까지 거의 47개월까지 치솟을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USPTO가 이러한 추세를 멈추지 못하면 경제에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생활 표준을 향상시킬 새로운 물품의 도입을 늦출 것이다.

상기의 문제점들을 개선시켜 줄 것으로 기대되는, 하원법사위원회를 통과한 H.R. 1561법안에는 중요한 두 가지 사항을 담고 있다.

첫째, H.R. 1561는 기술 분야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특허출원료를 15%에서 25%정도 올리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두 번째는, 모든 특허출원료가 계속해서 특허청에 남아 있도록 하는 것이다. 불행하게도 지난 12년 동안 65천만 달러 이상을 지적권과 전혀 관계 없는 정부프로그램에 전용해왔다.

캘리포니아 출신인 하원법사위원 Howard Berman은 “삶을 개선시켜주고 직업을 창출해낼 기술혁신이 USPTO의 출원적체에 잡혀 있는 것 같다”고 주장하고 있다.

출처 foxnews.com

기술혁신, USPTO가 안고 있는 의회가 법률안 불통과시, 악화될 문제로 위협

발명하는 생활속에서 웃음 가득 행복 가득

APEC CEO 2003 참석자들, 지재권 인식재고 교육 필요성 강조

APEC CEO 2003 참석자들은 지식재산권 보호를 주제로 한 회의에서 지식재산권 보호의 중요성에 대해서 의견을 함께 하였다.

태국의 가요계를 대표하는 Yuenyong Opakul은 음반에 대한 저작권 침해를 강력히 비판하면서, 태국정부의 지식재산권 보호정책에 대해 감사의 뜻을 표시하였다.

홍콩의 무역, 산업, 기술부 책임자인 John Tsang은 정부의 강력한 음반해적물에 대한 단속결과 일정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관련 법제 정비와 CD해적물 단속을 위한 특별 TF 구성이 실효를 거두었다고 한다.

홍콩의 경우 지식재산권에 대한 홍보와 교육에 연간 백만US달러를 사용한다고 한다.

Warner Music International 사장인 Paul-Rene Albertini는 음반산업의 세계시장이 320억달러에 달할 정도로 큰 시장이지만 성공률은 10%정도일 정도로 모험산업임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모든 참석자들이 공동으로 주장하는 바는 소비자 특히 젊은 세대들이 무체재산권의 가치와 보호의 필요성에 대해 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Microsoft의 최고기술담당자(CTO)인 Craig

Mundie는 저작권보호를 위한 4단계 전략을 제시하였다.

즉, 적절한 가격에 제품을 판매할 것, 대중에 대한 교육, 무체재산권을 보호하는 기술개발, 저작권 침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제안하였다.

Mundie는 APEC 정상회담에 참여하는 각국의 대표들이 특허법을 통일화하는 것에 대해서 합의하기를 바란다라고 한다.

그렇게 된다면 발명자들이 좀더 적절하게 보호 받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동기부여가 궁극적으로는 경제발전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저작권법의 경우 대개 전세계적으로 비슷한 법제를 가지고 있다고 그는 평가했다.

그렇게 된다면 발명자들이 좀더 적절하게 보호 받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동기부여가 궁극적으로는 경제발전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저작권법의 경우 대개 전세계적으로 비슷한 법제를 가지고 있다고 그는 평가했다.

출처 The Nation(태국)

젊은 세대들은 무체재산권의 가치와 보호의 필요성에 대해 교육 받을 필요가 있다

함께하는 발명으로 함께 누릴 밝은미래

미국내 중국기업의 특허분쟁 증가추세

중국은 미국과의 무역으로 연간 1,030억달러의 흑자를 내고 있으며, 단순히싼 가격의 장난감을 파는 것에 의해서 이러한 결과를 낸 것은 아니다. 이것은 미국 내에서 중국기업에 대한 특허분쟁이 증가하는 법적척도에 의해서 알 수 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ITC)에는 지난해 초부터 현재까지 13건의 중국기업에 대한 특허침해 사건이 제기되어 있다. 그 전에는 한건 내지 두건의 사건이 있던 것에 비해서 획기적인 증가를 보여주고 있다. 한편, 텍사스에 있는 미국지방법원에서의 소송에서 미국의 Cisco System사

는 “홈파는 기계”에 대한 중국의 Huawei Technologies사를 상대로 한 가처분 신청(preliminary)에서 승소했다.

보스턴의 변호사인 Lee Bromberg는 이 같은 현상을 중국의 경제가 성장했음을 보여준다고 분석하고 있다. 미국의 Energizer Holdings사에

의해 소송을 당한 중국의 9개 알칼린전지 생산업체를 변호하는 Steven Hollman은 미국에서 사업을 하는 경우 언젠가는 특허침해소송을 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외국기업들이 알아야 할 것이라고 충고한다.

출처 Forbes

중국, 미국과의 무역으로 연간 1,030억 달러 흑자

〈미국내에서 소송을 제기 당한 중국기업 사례〉

사 건

특허침해소송 대상

- Chamberlain Group v. Capital Prospect Ltd. (of China) : transmitters for garage door openers
- Climax Molybdenum Co. v. Molychem LLC : Ammonium octamolybdate isomers
- Cisco Systems v. Huawei Technologies : Software code used in routers
- Pfizer v. 7 Chinese drug companies** : Sildenafil (Viagra)
- Leviton Manufacturing Co. v. 6 Chinese companies : Ground fault circuit interrupters

함께해요 발명특허 보호해요 지식재산

일본기업, 중국기업의 지재권 침해로 인한 피해 우려

일 본기업들은 생산공장을 중국으로 이전한 후에 그들의 기술적 영업비밀이 누출되고 있는 것을 보고 분개하고 있다. 일본 특허청의 1500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특허침해의 33%가 중국기업과 관련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특허침해와 관련하여 경고장을 발송하였다.

마쯔시다는 파라소닉이라는 브랜드로 판매하고 있다.

또한, 산요전기도 Haier사의 냉장고나, 세탁기 같은 가전제품을 일본에서 보급하기 때문에 경고장을 같이 받았다.

일본기업, 생산공장 중국으로 이전 후 그들의 기술적 영업비밀이 누출되고 있는 것을 보고 분개

중국내에서의 지적재산권 보호가 어렵기 때문에 일본기업들은 일본과 기타 다른 시장에서도 특허보호에 관련한 압박을 받고 있다. 특히 일본의 가전업체가 특허보호의 압력을 많이 받는 이유는 개발된 제품이 낮은 가격으로 대량생산되기에 개발비용을 회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매출액 기준 일본 최대의 가전업체인 Matsushita Electric Industrial사는 매출액 대비 중국 최대 가전업체인 Haier사를

마쯔시다의 경고는 미국, 유럽, 일본기업의 중국기업에 대한 특허침해소송이 이루어지고 있는 와중에서 나온 것이다. 즉 Cisco Systems는 소프트웨어와 관련하여 Huawei Technologies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지난 7월에는 Sony가 중국의 BYD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BYD사는 일본의 가전제품 전시회에 자사의 배터리제품을 전시하였다.

출처 Financial Times

발행 2003/12

중국의 지적재산권 침해로 인한 피해 우려